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라!”

(수 3:6)



“마지막 때”(the time of the end)

1.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니, 그가 올 때에 나는 두려워 땅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하였다.”(단 8:17 바른성경)
2.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단 11:35)
3.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단 11:40)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5.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단 12:9)

마지막의 특징 - 대(大) GREAT

대 **쟁투**

대 **속죄일**

대 **제사장**

위대한 **재림운동** (GC 368)

큰 **재림운동** (GC 410, 423, 457)

큰 **운동** (GC 311, 343)

위대한 **종교운동** (GC 401)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다시 보라! 좀더 높이 보라!

“내가 가족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때에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초기, 14)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두 이방인

1.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0) 로마 백부장

2.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 15:28)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웁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

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마 15:21-28)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마 9:27)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마 15:22)

“**소경 둘**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마 20:30)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마 20:31)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막 10:48) **바디매오**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눅 18:39)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마 21:15)

다윗의 자손 = 하나님의 아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요 9:22)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소망, 405)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마 15:22)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매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15:22)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향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소망, 608-609)

개 (DOG <-> GOD)

- (레 11장) “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삼상 17:43)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 7:6)
-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을 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핏을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삿 7:5)

“네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마 15:22)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벘후 1: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웁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마 15:27-28)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화잇주석, 계 7:4-17)

마태복음 13장 비유(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의 생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 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을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써 예증하시는 동시에 **집 주인**의 비유로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소망, 333)

마태복음 13장 비유(8) 비교

1. 씨 뿌리는 자의 일(설명)	①	1. 자신의 사업
2. 곡식과 가라지(설명)	2	2. 당신의 나라의 성장
3. 겨자씨의 생장	3	3.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 분리
4.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	4	4.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
5. 감추인 보화	5	5.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6. 극히 값진 진주	6	
7. 고기잡이 그물	7	
8. 집주인	⑧	

(소망, 333)

2.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설명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발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가라지, 독보리 [지자니온] 8(신약)

1. (마 13: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 (마 13: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3. (마 13: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4. (마 13: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5. (마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6. (마 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7.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8.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쭈정어, 왕겨 [모츠] 8(구약)

1. (욘 21: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2. (시 1:4)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 (시 35:5)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4. (사 17: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 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5. (사 29:5) “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6. (사 41:1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7. (호 13:3)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쭈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8. (습 2:2)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 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쪽정이 [아퀴론] 2(신약)

(마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 시리라”

(눅 3: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 시리라”

(암 9:9)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 / 키질

(암 9:9)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아: 40회 흔들다, 떨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민 32: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암 8:11-12)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마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 3:17)

(눅 22: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가라지 / 쪽정이(겨)

알곡과 **가라지**(씨가 다름)

구약 X

곡식과 **쪽정이**(씨는 같으나 상태가 다름)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심 두 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

“예수님께서서는 공중 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신성 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성전을 두번째로 깨끗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것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게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 14:8)라는 것이었다.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 (계 18:4, 5) 셧다고 하였다(**RH 1892. 12. 6**)”(2기별, 117-118)

큰 외침의 시작

“주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꾸미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들은 열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연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키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희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1기별, 363; **RH 1892. 11. 22**)

RH 1892. 11. 22 ~ 1893. 1. 10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 1 (RH 1892.11.22)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 2 (RH 1892.11.29)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심 / 두 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

분명한 나팔을 불자 1 (RH 1892.12.6)

분명한 나팔을 불자 2 (RH 1892.12.13)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RH 1892.12.20)

함께 자라게 두어라 1 (RH 1893.1.3)

함께 자라게 두어라 2 (RH 1893.1.10)

두 번의 부르심(분리)

***** 곡식과 **가라지** *****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마 13:30)

***** 알곡과 **쪽정이** *****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라”(마 3:12)

알곡이 되려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 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해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 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실물, 70)

걱정과 가라지를 분별하라!

